

메시지 5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성경: 요 10:11, 16, 21:15-17, 벰전 2:25, 5:4, 히 13:20, 계 1:13, 2:1, 7

- I.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부터 목양하심을 거쳐 오는 시대에 왕권을 얻으심까지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 A.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과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에 대해 말하는 시편 22편과,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온 땅을 다시 얻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시편 24편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 B.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목양하시며,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모셔 올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 II.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시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 A. 요한복음은 스물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20장으로 끝난다.
 - B. 요한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룬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 안의 사람이 되신 것으로 시작해서(요 1:14),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으로 끝마친다(20:22). 따라서 21장은 부록에 해당한다.
 - C.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좀 더 내재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사도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요한복음 전체를 완결한다.

- III.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과 16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 주신다. 이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양들(이방인들)을 얻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처음 양들(유대인 믿는 이들)과 함께 결합하여,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A. 주님의 목양하심은 먼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다 — 마 9:36, 비교 10:1-6.
 - B. 주님의 목양하심은 다음으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으며(벰전 5:4),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 IV.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다.
 - A. 주님은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하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중 한 번,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동안에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다 — 요 21:15-17.
 - B.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양 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이다.
 - C.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6:4)라고 말했다. 이것은 중보기도 하시고(히 7:25)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 안으로 공급하시는(8:2)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것이다.

D.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 벨전 2:25.

1.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지만, 또한 우리 내적 존재의 상태와 상황을 감독하시며 관찰하신다.

2.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인 우리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 비교 히 13:17.

E.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 장께서 나타나실 때 신실한 장로들인 그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 벨전 5:1-4.

F.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V.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도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것임을 보여 준다.

A.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말했다.

B. 바울은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 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행 20:29)라고 말했다. 사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으며(행 20:24), 자신과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교회의 장래를 매우 염려했다.

C.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 하나님께서”라고 말한다.

1. 영원한 언약은 한 양 떼를 얻기 위한 신약의 언약이다. 이 양 떼는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목양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큰 목자가 되게 하셨다.

VI.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비교 엡 3:2, 8-9, 벨전 5:10.

VI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된 목표와 궁극적인 완결을 위해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문제는 아가에서도 언급된다.

A.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만족을 위해) 양 떼를 먹이시나요? / 한낮에는 어디서 (안식을 위해) 양 떼를 쉬게 하시나요?” — 아 1:7상.

B.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도록 하오.” — 아 1:8하.

C.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 그이는 백합화들(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 — 아 2:16.

D.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 — 아 6:3.

VIII.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목양하는 길을 취해야 한다.

- A.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부흥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목양하며, 사람들을 양 떼처럼 함께 모이게 하고 싶습니다.”
- B. 요한복음 10장과 21장에서 주님은 목양에 관해서 ‘먹이다(feed)’, ‘목양하다(shepherd)’, ‘양 떼(flock)’(요 10:16, 21:15-16),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또한 ‘양 떼’를 ‘모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
- C.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무리지어 모이는지를 배움으로 함께 섞일 수 있어야 한다.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앞장서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IX.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금등잔대를 유기적으로 보수하는 것인데, 이 사역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함으로써, 그분의 유기적인 목양을 통해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 계 1:13, 2:7, 요 10:11, 14, 벰전 2:25, 5:4, 히 13:20.

- A. 사람의 아들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표시이다.
 - 1. 그리스도는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교회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일을 위해 강화되셨지만(출 28:4, 단 10:5), 이제는 가슴에 띠를 띠시고 자신이 산출하신 교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신다(계 1:13).
 - 2.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가슴은 금과 같은 이 힘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발휘되고 사용되어 교회들을 보양하는 것을 상징한다.
- B.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며 보살피신다 — 계 1:13상.
 - 1.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여 합당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심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신다 — 출 30:7, 비교 시 42:5, 11.
 - a.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보살핌으로써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준다.
 - b.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리면서, 보양하는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엡 5:29, 비교 딤후전 4:6, 엡 4:11.
 - 2.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들의 심지를 손질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잘라 내신다 — 출 25:38.
 - a. 심지의 검게 탄 부분 곧 불뚝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라 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상징한다.
 - b. 그리스도는 교회들 사이의 모든 차이점(잘못과 부족과 실패와 결점)을 잘라 버리심으로써 교회들을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 있어서 똑같이 되게 하신다 — 비교 고전 1:10, 고후 12:18, 빌 2:2.
- C. 그리스도는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그분의 신성과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심으로써 보양하신다 — 계 1:13하.
 - 1.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심으로써,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
 - 2. 거니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정돈하시고, 신선한 기름이신 그 영을 공급하시어 등잔대들을 채우신다 — 계 2:1, 7, 비교 출 27:20-21, 슥 4:6, 11-14.
 - 3.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한다.

X.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을 통해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복으로 누릴 것이다 — 사 49:10, 계 7:9-17, 요 6:35, 4:13-14, 시 36:7-9, 91:1, 사 12:1-6, 계 22:1.